

광주FC, 인천상 6 작전

‘승점 2점차’ 6위 인천과 25일 K리그1 14라운드 원정경기 골 결정력·수비 조직력 강화...인천 ‘해결사’ 무고사 막아라



광주FC가 인천 원정에서 6위 탈환에 나선다. 광주는 25일 오후 7시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1 14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7위 광주와 6위 인천은 승점 2점 차,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두 팀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최근 10경기 전적으로 보면 4승 3무 3패의 광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인천이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앞선 모습이다. 앞선 13라운드 경기에서도 광주는 패, 인천은 승을 기록했다.

15일 울산HD와의 지연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던 광주는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19일 경기에서 최하위에 있던 전북현대에 0-3 대패를 당했다. 인천은 문지환의 결승골을 앞세워 대전에 1-0 승리를 챙겼다. 이정호 감독은 전복전 패배 후 이례적으로 선수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다. 승리를 거둔 날 단체 사진을 찍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정호 감독은 선수단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광주는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선수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이정호 감독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의미의 ‘水滴穿石(수적천석)’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량 발전을 위한 선수들의 노력을 당부한 것이다. 앞선 전복전에서 끝내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18개의 슈팅을 날리는 등 공격적인 움직임은 좋다. 특히 엄지성이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개인기로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골문’이다.

엄지성은 전복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슈팅을 몇 차례 선보이기도 했지만 골대 불운에 울면서 골 세리머니를 하지 못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진희도 성실하게 훈련을 하고 헌신적으로 경기를 뛰면서 광주 공격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박태준과 정호연이 버티고 있는 미드필드 라인도 든든하다. 울산전에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친 박태준은 전북전에서도 연달아 킥패스를 선보이는 등 발끝이 매섭다. 정호연은 차원이 다른 경기력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면서 ‘중원의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 시즌 광주의 약점은 역시 수비다. 광주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23골을 내주면서 강원FC와 함께 리그 최다 실점 1위다. 변준수가 꾸준한 모습으로 센터백 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다른 한 자리가 고민이다. 포포비치, 안영규와 함께 ‘전천후 플레이어’로 변신한 허술이 번갈아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는 수비조직력을 최우선으로 해 인천의 ‘해결사’ 무고사를 막아야 한다. 5월에 3골을 추가한 무고사는 올 시즌 7골을 장식하면서 강원 이상현(8득점)에 이어 득점 2위다.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등 인천 공격의 또 다른 핵심 제르소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무고사를 막는 게 중요하다. 광주가 골 결정력과 수비 조직력 숙제를 풀고 인천 안방에서 6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26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6위 탈환을 노린다. 사진은 광주 선수단이 경기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 <광주FC 제공>



지난 4월 1일 대구구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던 임기영이 23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선발로 나와 복귀를 위한 리허설을 소화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마운드 임기영도 돌아온다

퓨처스리그 삼성전 4이닝 무실점 구속 낮지만 안정적 제구 돋보여 두 달만의 1군 무대 복귀 ‘초읽기’

KIA 이외리에 이어 임기영(사진)이 복귀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KIA 타이거즈 사이드업 임기영은 23일 합평-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

스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서 복귀를 위한 최종 리허설을 소화했다. 이날 임기영은 4이닝 1피안타 2볼넷 3탈삼진 무실점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34km, 평균 구속은 131km를 기록했다. 시즌 초반 구속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안정감’이 돋보였다. 임기영은 67구로 4회를 처리했다. 특히 43개의 공을 스트라이크존에 던지며 정교함을 보여줬다. 39개의 직구를 던진 임기영은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20개·118~124km)과 슬라이더(8개·123~128km)도 시험했다. 성공적으로 리허설을 끝낸 임기영은 2달 만의 1군 무대를 기다린다. 임기영은 지난 3월 29일 두산전에서 시즌 두 번째 등판을 한 뒤 4월 1일 좌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후 재활을 거쳐 4월 19일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실전을 소화했지만 부상 부위 통증으로 복귀가 늦어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역 선수들 ‘한화 이글스배 고교·대학 올스타’에

동강대 김유현·목포과학대 나경수 등 동강대 김유현과 목포과학대 나경수가 고교·대학 올스타전에 나선다. 동강대를 졸업하고 원광대에서 뛰고 있는 정영웅도 올스타가 됐다. 6월 6일 한화생명이글스 파크에서 2024 제2회 한화 이글스배 고교·대학 올스타전이 열린다. 대한

야구소프트볼협회는 최근 올스타전에 참가할 고교·대학 선수단을 최종 선발했다. 10개 구단 스카우트 팀장이 선발 회의를 갖고 선수들의 기량과 현재 컨디션 등을 검토해 포지션별 24명(투수 10·포수 3·내야수 6·외야수 5명)씩 선발했다. 동강대에서는 2년 연속 올스타가 나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대 ‘수문장’ 박종건 亞대학축구선수권 출격

광주대 ‘수문장’ 박종건(3년·사진)이 아시아 대학축구선수권 대회 승리를 지킨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최근 2024아시아대학축구대회 20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대 박종건은 중원대 박상혁과 함께 골키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종건은 올 시즌 대학축구 U리그 2권역 5경기에 출전해 광주대 골문을 지켰다. 아시아대학축구대회는 아시아 대학 축구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시작됐으며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과 개최국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7개국이 우승을 다툰다. 한국은 지난해 A·B팀으로 나눠 대표팀을 파견했으며 B팀이 준우승, A팀이 3위를 기록했다. 우승은 일본이 차지했다. 건국대 이성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 소집돼 우승을 목표로 훈련을 시작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52경기 만에 패’ 레버쿠젠 감독 “자랑스럽지만 무패 중단은 고통”

유로파리그 결승서 아탈란타에 0-3 완패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공식전 52경기 만에 패배의 쓴맛을 본 레버쿠젠(독일)의 사비 알론소(사진) 감독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레버쿠젠은 23일 아일랜드 더블린의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탈란타(이탈리아)와의 2023-2024 UEFA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아테올라 루크메니에가 헤트트릭을 허용하고 0-3으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레버쿠젠의 ‘무패 트레블(3관왕)’ 꿈이 무산됐다. 레버쿠젠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최초 무패 우승(28승 6무)의 역사를 썼다. 분데스리가를 포함해 공식전 51경기 무패 행진(42승 9무)을 달리던 레버쿠젠은 유로파리그와 독일축구협회(DFB)-포칼까지 모두 제패하는 무패 트레블을 노렸다. 그러나 52경기 만에 패했고, 알론소 감독은 아탈란타의 우승을 축하하면서도 속상함을 숨기지 못했다. 알론소 감독은 우선 “아탈란타가 우리보다 잘했다. 트로피를 안을 자격이 있다”고 승자를 예우했다. 이어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었다. 슬픈 밤이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져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알론소 감독은 “52경기 만에 지는 게 정상은 아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무패 트레블이 무산된 것에 대해 “고통스럽다”고 했다. 알론소 감독은 “루크메니의 첫 골 이후 아탈란타가 엄청난 기세를 보여줬고, 우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무패 트레블이라는 목표는 깨졌으나, 레버쿠젠은 26일 DFB-포칼 결승에서 카이저슬라우테른을 상대로 ‘더블’(2관왕)에 도전한다. 알론소 감독은 “(패배했지만) 선수들에게 여전히 고맙다”고 한 뒤 포칼 결승전에 대해 “의미가 크다. (오랜만의 패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